

# 인공지능부터 미래차까지...인류 삶 바꾸는 기술 향연

현대차, 신개념 모빌리티 선배... '로보틱스' 강조  
라이다·브레이크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 대거 공개  
미국 가는 광주 인공지능 기업들, 해외시장 '노크'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인공지능(AI)·미래차 등 관련 국내 기업들이 신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광주 AI 기업들도 CES서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다.

◇현대차, 로보틱스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보여

현대차는 로보틱스 기술과 메타버스의 결합 등을 통해 '이동'의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CES에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를 주제로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하고 신개념 로봇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모든 사물에 이동성이 부여된 '모빌리티 오브 팅스·모티'(Mobility of Things·MoT)', 생태계 실현을 위한 핵심 로보틱스 기술 기반의 'PnD(Plug & Drive) 모뎀'을 최초로 공개한다. 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도 선보인다. 모베드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현대모비스는 혁신 기술을 적용한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카 2종을 선보인다. 제자리 회전은 물론 네 바퀴가 90도로 꺾여 평행주차가 가능하며, 그릴 앞부분에 장착된 커뮤니케이션 램프로 주위와 소통도 할 수 있는 차들이다.

◇'자율주행차의 눈' 라이다 전문기업도 출격

국내 라이다 분야 대표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스오에스랩도 CES서 자사 제품을 선보인다. 라이다는 레이더에 빛을 더한 합성어로 레이더가 전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속도로 사물을 감지하는 반면, 라이다는 전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쏘아 레이더가 못 보는 사각지대까지 파악한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학생창업기업으로 잘 알려진 에스오에스랩은 'CES 2022'에서 고정형 라이다 제품인 'ML(Mobility LiDAR)'을 선보인다.

에스오에스랩은 이번 'CES 2022'를 통해 국내 기술로 완성된 고정형 라이다 제품 ML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에스오에스랩은 고정형 라이다의 한계로 지적됐던 거리와 화각의 문제를 해결해, 지난 전시회에서 'CES 2021'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CES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외경.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 특별취재팀

관람객들이 라이다를 직접 체험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벤트 존도 마련했다. 에스오에스랩은 라이다 데이터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운영한다. 해당 기업은 'CES 2022' 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지성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기술로 완성된 고정형 라이다의 성능과 솔루션을 직접 오셔서 체험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접었다 폈다'...세계 최초 일체형 통합전자브레이크 첫 선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업체 '만도'는 이번 'CES 2022'에서 최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을 공개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혁신상까지 거머쥐었다. 혁신상을 수상한 만도의 이번 출품작은 최첨단 통합전자브레이크 시스템(IDB2)이다. 만도의 통합 전자브레이크는 운행 중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특히 브레이크를 접었다 폈다하며 움직일 수 있는 'E-브레이크 페달'의 '오토

스톱' 기능이 눈길을 끈다.

◇광주 AI 기업도 큰 관심 모아

광주시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해 손을 잡은 AI 기업들이 CES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AI 학습데이터 전문기업 에이모(AIMMO)는 CES에서 최신 스마트 라벨링(정제·분류·검수 등 데이터 전처리 과정) 기술 쇼케이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에이모는 CES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라벨링하는 '스마트 라벨링' 기술을

선보인다. 사용자가 보유한 원천 데이터를 올리고 프로젝트 목적에 맞춰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커스텀 모델'과 원천 데이터가 없더라도 사전에 제작한 객체 데이터를 적용해 라벨링할 수 있는 '프릿셋 모델'을 공개한다.

정도일 에이모 본부장은 "이번 CES 2022에서 공개하는 개선된 스마트 라벨링 기술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데이터 확보 및 가공에 대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AI 데이터 컴퍼니 포지셔닝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 각종 혁신 기술로 미래 라이프스타일·비전 소개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서 각종 혁신 기술로 고객의 경험을 연결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LG전자는 'CES 2022' 개막 하루 전 온라인을 통해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LG 월드 프리미어(LG World Premiere)'를 진행한 다.

◇삼성전자 CES 2022 전시관, 참가자 중 최대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 이번 CES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3,596㎡(약 1,088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장에는 16m와 8m에 달하는 2개의 초대형 LED 사이니지 월을 조성해 CES 2022에서 선보이는 각종 기술·비전을 상영한다.

삼성전자는 CES 2022에서 '팀삼성'(Team Samsung) 개념을 제시한다. 팀 삼성은 차별화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TV와 가전부터 모바일 제품까지 다양한 기기를 서로 연결해 고객에게 하나의 터치점 유익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TV 라인업인 마이크로 LED, 네오(Neo) QLED, 라이프스타일 TV를 중심으로 성능과 편의성을 강화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맞춤형 스크린' 시대를 제안한다.

최상위 TV 제품인 '마이크로 LED'의 경우 기존 110형에 이어 101형과 89형 2개 모델이 CES 2022에서 최초로 공개된 다.

삼성전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확산 트렌드를 반영해 마이크로 LED, Neo

삼성전자, 고객에 유기적 경험 제공 '팀삼성' LG전자, '월드프리미어' 신개념 가전 공개

QLED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서 NFT 콘텐츠를 구매·감상하는 세계 최초의 'NFT 플랫폼'도 선보인다.

삼성전자가 CES 2022에서 처음 공개하는 '삼성 봇 아이'는 사용자 곁에서 함께 대화하며 이동하는 상호작용(인터랙션) 로봇으로, 사용자를 보조하는 기능과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로봇을 제어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에서 각종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보조 로봇 '삼성 봇 핸디'도 시연한다.

◇LG전자, 본 행사 전 온라인 통해 미래 비전 소개

LG전자는 4일 오전 8시(한국시간 5일 오전 1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2' 공식 사이트를 비롯해 LG전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공개한다.

LG전자는 이번 'LG 월드 프리미어'의 주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일상(The Better Life You Deserve)'에 맞춰 ▲고객의 더 나은 일상(A Bet-

ter Life for You) ▲모두의 더 나은 일상(A Better Life for All) ▲미래의 더 나은 일상(A Better Life Tomorrow)을 소개한다.

신개념 공기청정팬 'LG 퓨리케어 에어로타워'를 비롯 ▲집 안에서 다양한 식물을 손쉽게 키우고 즐길 수 있는 식물생 활가전 'LG 락온(LG tiion) 오브제컬렉션' ▲원하는 장소로 간편하게 이동하며 시청할 수 있는 무선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한층 업그레이드한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LG 씽큐

(ThinQ)' 앱과 스마트 키친 기능을 강화한 '씽큐 레시피(ThinQ Recipe)'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LG전자가 이번 CES 2022에서 새롭게 선보인 LG 윌드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의 콘셉트 모델이다.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영화감상,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LG 클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서브봇, 실내의 통합배송로봇 등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며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일상을 선보인다. 또 LG 전자의 가상인간 김래아(레이)도 다시 한 번 깜짝 등장한다. 레이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노출되며 가수로서의 데뷔가 임박했음을 알린다.

LG전자는 환경을 생각한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모두의 더 나은 일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LG전자 ESG 지향점을 소개한다.

지난 2006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로 한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을 기존 450만 t에서 800만 t으로 늘렸고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 60만 t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 "세계시장에 '제품' 우수성 알릴 것"

잉코, 전기방석·담요·온열찜질기 등 라인업

국내 대표 프리미엄 온열 브랜드 '잉코(INKO)'가 'CES 2022'에서 자체 온열제품을 선보인다. 국내 흡수 펌프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온 잉코의 혁신 제품과 기술력을 감상할 수 있어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잉코가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극세사 전기담요', '전기방석 힐스웨이드', '휴대용 온열찜질기' 등이다.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방석 힐스웨이드'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는 사용감도 뛰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가벼운 이염이나 오염물에 노출되더라도 멀티 슈루 가법계 닦아 제거할 수 있다.

잉코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온열 브랜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기매트와 담요 등 전 제품에 최첨단 친환경 소재 은나노를 사용하고 있다. 잉코의 제품들은 면발열 형태의 면상발열체여서 두께감이 얇고 가벼운 점이 특징이다.



잉코 전기담요.

잉코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본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참가하게 됐다"며 "CES를 시작으로 여러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파루인쇄전자, 에너지 절감형 히터 출품

파루인쇄전자가 'CES 2022'에 참가, 차세대 인쇄 필름히터 기술을 소개한다. 파루인쇄전자는 CES에서 에너지 절감형 히터를 출품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번 CES에서 파루인쇄전자는 인쇄 필름히터(냉장고용 히터)와 전자냉각수히터,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원료) 히터 등을 선보인다.

인쇄전자기술을 적용한 인쇄 필름히터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합성수지에 인쇄해 만든 면(面) 형태의 전기발열체다. 전압이 공급되면 필름에 인쇄된 은나노 잉크 패턴을 타고 흐르는 전류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갈색 빛을 띠는 폴리이미드(PI) 필름



파루인쇄전자 반도체 웨이퍼 공정. /파루인쇄전자 제공

히터는 80-180도 수준의 발열성능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파이프히터, 전기 밥솥의 보조 열원 및 보온용, 극저온의 통행로의 결빙 제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파루인쇄전자는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인쇄 히터 기술도 선보인다.



CES 2022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 전자 모델들이 LED 사이니지 월을 이용한 미디어 월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LG 올레드 예보, LG QNED MiniLED 등 2022년형 TV 라인업과 오디오 신제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입구. /LG전자 제공